

사랑의 이유:

역사성, 이데올로기, 그리고 관계성

양선이*

【요약】

어떤 이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과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한편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여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면 필수적인 특징이 사라지면 사랑도 변할 것이다. 또한 사랑할 이유가 어떤 하나로 충분하다면 플라톤 『향연』의 ‘디오티마의 사다리’에서처럼 다수를 사랑해야 하는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사랑에 관한 퍼즐’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나는 ‘사랑의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본성에 관해 제시된 최근의 세 관점, 즉 프랑크푸르트, 콜로드니, 벨레만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성, 이데올로기, 그리고 관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나는 이유를 동반하여 사랑의 대상을 기술한 명제에 대한 *de re* 해석을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고유한 역사적 인연을 공유하여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배타성을 가진 관계 하에서 특정 속성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 속성을 가진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감정이 사랑이고 그 감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다.

【주제어】 규범적 승인, 대체불가능성, 역사성과 이데올로기, 관계성, 사랑의 *de re* 해석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 이 글에 대해 상세하고도 유익한 지적을 통해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사랑에 이유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하는 이유에도 잘못된 이유들이 있다. 마치 미적 판단을 하는데도 잘못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저것은 참으로 아름다워!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그 작품이 아름다운 이유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왜 당신은 그 여자를 사랑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왜냐하면 그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이죠! 라든가, “장관의 딸이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이 사랑에 대한 적절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그 답은 대부분 그 사람의 외모이거나 성격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예쁘고 성격이 좋아, 친절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등등.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성격이나 외모가 유덕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만일 사랑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영희가 돈이 많아서, 또는 미모가 출중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여배우와 닮아서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잘못된 종류의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되어야지 단지 피상적이고 부수적이며 투사해 넣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 그 자체에 대해 사랑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고 사랑받게 될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랑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랑받게 된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어떤 이를 다른 조건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사랑하여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변한다 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사랑의 본성을 이유를 동반하여 사랑의 대상을 기술한 명제에 대한 *de re* 해석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²⁾

II. 사랑의 퍼즐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 프랑크푸르트의 ‘규범적 승인’ 이론

어떤 이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과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양립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변한다 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이유로 충분하다면 플라톤 『향연』의 ‘디오티마의 사다리’에서 처럼 다수를 사랑해야 하는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³⁾ 우리는 이를 ‘사랑에 관한

- 1) A. Rorty, “The Historicity of Psychological Attitudes: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not When It Alteration Finds.” In *Mind in Action :Essay in Philosophy of Mind*(Boston: Beacon Press, 1988).
- 2) 원래 *de re*와 *de dicto*의 구분은 고정 지시어나 기술문구가 등장하는 문장을 해석하는 두 관점을 지칭한다. 해당 기술문구를 만족하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참인 명제로 해석할 경우(*de dicto*)와, 현재 그 기술문구를 만족한 특정 대상에 대한 주장으로 해석하는 경우(*de re*)의 구분이다. 나는 이 구분을 사랑의 이유를 동반한 사랑의 대상을 기술한 명제에 적용하여 *de re* 해석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 3) 플라톤의 『향연』에 여사제 디오티마로부터 소크라테스가 알게 된 어떤 것으로 ‘사랑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사랑의 참된 대상은 아름다움이라고 디오티마는 주장한다. 당신이 어떤 아름다운 소년을 사랑할 때 당신은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이 당신이 사랑하기 위한 이유이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가 다른 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적용할 때 일관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특정한 그리고 모든 다른 소년들에게 확대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일반화하면서 디오티마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친애하는 소크라테스여, 만일 인간의 삶이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보게 되

퍼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랑의 퍼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속성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원인인가? 이 물음은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다.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사랑스러움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인가?⁵⁾ 즉 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기 위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퍼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내가 사랑할 이유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속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여한 것(bestowing)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내가 부여한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여한 속성은 단지 욕망의 투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부여함(bestowal)”이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실제로는 갖지 않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나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실제의 속성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고차욕망(second-order desire)’을 통해 ‘규범적 승인’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와 같은 두 번째 해석은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가 제시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면 예쁘장한 소년이나 막 남성으로 숙성한 소년의 매력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숨을 멎게 했던 그리고 당신 속에 열정적인 감망을 불타오르게 했던 그 아름다움들에 대해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향연』, 211)

간략히 말해, 당신이 그 소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소년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모든 아름다운 소년을 사랑해야만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를 아름다움 그 자체와 바꾸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리 즉 그 이름을 가질 가치가 있는 어떤 이유는 보편화 가능해야만 한다는 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 4) 코스가드는 사랑에 관해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말하고 있는 가치문제에 이 생각을 적용해 보면, 이런 입장을 가치 실재론이라 할 수 있다. C. Korsgaard, *The Source of Normativity*, Ch. 2. 참고.
- 5) 코스가드 식으로 보자면 이런 입장은 반성적 승인주의라고 할 수 있고, 흄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Korsgaard, *The Source of Normativity*, Ch. 2. 참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for us) 가치를 필수적으로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⁶⁾ 로버트 솔로몬도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임과 가치를 부여한다.”⁷⁾ 사랑의 본질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함”이라는 점에서는 솔로몬과 프랑크푸르트의 입장이 유사하지만, 프랑크푸르트와 솔로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즉 솔로몬은 사랑의 관계에 고유한 ‘대체불가능성’을 ‘아리스토파네스적 역사성’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대체불가능성’을 *de re* 해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점에 있다. 이후 필자는 사랑의 관계에 고유하고 독특한 ‘대체불가능성’을 콜로드니의 입장을 받아들여 관계가치로 봄으로써 프랑크푸르트와 솔로몬의 입장을 양립가능하게 만들고, 역사성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프랑크푸르트, 솔로몬, 그리고 콜로드니의 입장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사랑의 이유로서 관계가치와 *de re* 특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우선 프랑크푸르트가 말하는 ‘부여함’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사랑의 퍼즐의 해결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프랑크푸르트의 생각은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No-Reasons)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사랑할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들 또는 성질들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고, 이는 곧 사랑하는 이가 가진 조건이나 성질이 변하면 사랑할 이유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랑의 관계에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체불가능성’ 또는 ‘배타성’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는 사랑의 본성을 밝히는데 있어 이유를 통해 사랑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을

6) Harry Frankfurt, *The Reason of Lov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38-39.

7) R. Solomon, *Lessons of Love*(and Plato's *Symposium*). In R. C. Solomon, *True to Our Feeling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55.

8) ‘아리스토파네스적 역사성’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제 V장에서 다루겠다.

거부한다.)⁹⁾ 대신에 그는 “고차 욕망”이 “규범적 승인”을 통한 “부여함”이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입장은 사랑의 퍼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듯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흄은 이를 “윤색(gilding), 또는 도금(staining)의 메타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채색과 도금의 메타포를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 정신은 외부 대상들에다 마음의 내적인 작용이나 내용을 확산해(spread) 가려는 위대한 경향성을 갖는다. 도덕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 정신은 우리 내부로부터 빌려온 “내적 감정(internal sentiment)”을 가지고 외적 대상이 아닌 내적 대상, 즉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평가 작용이나 내용을 확장함으로써 윤색(gilding)을 한다. 즉 도덕적 평가의 경우 관찰자는 공평무사한 마음을 가지고 是認된 감정을 통해 인간 정신과 성품을 “윤색”한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기질들에 도금을 입힘으로써 도덕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렇다면 유덕함과 부덕함이라는 것의 도덕적 지위는 도덕감이 벗어낸 새로운 창조물이다.¹⁰⁾ 이러한 생각을 사랑이라는 가치 부여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우리의 내적 감정을 그의 마음속으로 확장해 감으로써 윤색을 한다. 이 때 윤색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어떤 것에 평가자의 가치를 덮어씌운다는 의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평가자의 가치 부여가 더해져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반드시 인식한 결과도 아니고 사랑에 의해 마음이 사로잡힌 결과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for

9) 이러한 의미에서 니코 콜로드니는 프랑크푸르트의 입장을 “이유없음 이론(No-Reasons View)”이라고 부른다. Kolodny(2003), 142-146.

10) Hume,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by L.A. Selby-Bigge. 3rd edi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294.

us) 가치를 반드시 획득한다. 사랑하는 자는 그의 연인이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그가 그의 연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그의 사랑에 의존하고 그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¹¹⁾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여함(bestowing)’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로버트 자온스(Robert Zajonc)가 말한 두 가지 심리적 요인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친근함(familiarity) 그 자체가 좋아함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순히 친근함만으로 심장이 뛰게 만들 수 있다고 자온스는 주장한다. 두 번째 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조건반사적 연상 학습이라 할 수 있다.¹²⁾ 사랑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피터 골디(Peter Goldie)의 예를 취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제임스는 메리가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요리도 잘하는 탓에 메리가 사랑스럽다(loveable).¹³⁾ 여기까지 메리를 사랑할 만한 속성들로서 드 수자가 말한 ‘중심적 속성(focal property)’(우아함, 매력적임, 지적임 등)은 사랑의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인 ‘사랑스러움(lovability)’과 아주 잘 맞다.¹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가 메리를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11) Frankfurt, *Ibid.*, 38-9.

12) Robert Zajonc,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1980): 152-75.

13) Peter Goldie, "Love for a Reason". *Emotion Review* 112(2)(2010), 64.

14) 모든 태도에 대해 우리는 적절성(appropriateness)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각각의 태도의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이라고 말한다. 참, 좋음, 위험함 등은 믿음, 욕구, 그리고 공포 각각에 대한 형식적 대상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무섭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원하는 그것이 명제가 아닐 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러한 태도가 지향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사물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많은 철학자들은 감정의 목표(target)이라 부른다. 때때로 감정의 "대상"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의 원인을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엄밀히 말하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아함’, ‘지적임’ 등은 제임스가 메리에게 끌리도록 고무할 수 있다. 만일 메리가 오렌지색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제임스는 메리의 오렌지 색 머리카락에 친근해 질 것인데, 그 이유는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아함과 매력적임, 그리고 다른 매력적인 성질들에서 비롯되는 긍정적 느낌(친근함)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연상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이 전에는 오렌지 색깔 머리카락에 매력을 못 느꼈지만 메리에게 있는 우아함과 매력적임에 조건반사적 연상 작용이 더해져 이제 그는 아주 기쁘게 메리에게 오렌지 머리카락 그 자체가 아니라, 고차 순위의 속성(second-order property)인 오렌지색 머리카락에 대한 사랑스러움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머리카락 색깔은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포를 정당화하는 ‘위험성’과 달리 오렌지 색깔 머리카락 그 자체는 제임스의 메리에 대한 사랑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때 제임스는 ‘친근함’과 ‘조건반사적 연상’ 때문에 사랑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퍼즐에 대해 주관적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랑할 이유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속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여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성질에서 비롯되는 친근함(긍정적인 느낌)에 조건반사적 연상 작용이 일어나 그 사람에게 사랑스

면 사건인데, 그와 같은 원인은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설명하지만 우리는 감정적 반응의 특징을 설명하는 사건들의 특성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대상”,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의 타깃이 갖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을 de Sousa는 중심적 속성(Focal Properties)이라고 본다. 어떤 태도가 정당화되는지 적합한지를 평가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 타깃이 그와 같은 태도의 형식적 대상에 맞는 중심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 예컨대, 내가 개를 보고 무서워 떨 때, 그것은 개의 사나움 때문이다. 개는 목표(target)이고, 사나움 성향은 그 개가 위험하다는 믿음을 지지하는 중심적 속성(focal property)이다. 나는 개의 속성에 관해 틀릴 수 있다. 그 개는 사납지 않은데, 나의 공포는 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불행한 일에서 비롯된 포비아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개는 나의 공포의 타깃이긴 해도 그 개는 ‘위험성’이라는 공포의 ‘형식적 대상’에 맞는 ‘사나움’이라는 ‘중심적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러움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의 ‘부여함’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정확하지 못하다. 사랑을 ‘부여함’이라고 할 때, 이 ‘부여함’을 ‘친근함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여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이라는 속성을 부여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랑을 감정의 일종으로 보고 제임스의 메리에 대한 사랑에서 사랑의 고유한 특성인 대체불가능성을 메리가 가진 속성에 대한 제임스의 고차 승인(higher-order endorsement)으로 보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사랑을 감정이라기보다 어떤 ‘행위’로 보기를 제안하면서 사랑에 고유한 ‘대체불가능성’은 ‘사랑스러움’이라는 기술문구를 만족한 특정 대상에 대한 *de re* 해석을 통해 강조한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고차 욕망을 통해 규범적으로 승인된’ 행위로서의 사랑은 단순한 충동으로서의 사랑과 구별되며 기술불가하다고 프랑크푸르트는 주장한다.¹⁵⁾ 나는 프랑크푸르트의 입장에 동의하여 사랑을 일종의 감정이라기보다 행위의 한 형태로 보고, ‘대체불가능성’ 그리고 *de re* 특성을 통해 사랑이라는 행위의 본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 사랑의 퍼즐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 - 콜로드니의 관계 가치로서의 사랑

사랑의 퍼즐에 관한 두 번째 해결방안은 사랑을 관계 가치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니코 콜로드니(Nikko Kolodny)는 관계의 존재(the existence of relationship)가 그 자체로 사랑을 위한 타당한 이유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 관계 즉 부모, 자식 관계가 그 자체로 사랑을 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15) H. Frankfurt, “On Caring”, in *Necessity, Volition, and Lo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64-170.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관계 또한 사랑을 위한 이유의 토대를 제공한다. “내가 제안하기를, 제인을 사랑하는 나의 이유는 그녀에 대한 나의 관계 때문이다. 즉 그러한 관계는 그녀가 내 딸이거나, 나의 어머니거나, 나의 누이이거나, 나의 친구이거나, 즉 그녀와 함께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온 그런 것이다.”¹⁶⁾

콜로드니의 입장에 따르면, 인과적 역사보다 관계가 갖는 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 관계는 규범적인 틀이고, 그리하여 사랑의 의무에 해당하는 듯한 사랑에 대한 특별한 이유들을 낳는다. “사랑은[...]관계의 현존에 의해 규범적으로 적절하게 된다. 더 나아가, 사랑은 어떤 관계가 그것을 적절하게 만든다는 믿음 속에서 생기며,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동기들은 이러한 믿음에 의해 인과적으로 지지된다.”¹⁷⁾ 어떤 이는 가족 관계가 자연적인 한, 가족 결속은 본질적으로 출생이라는 기제에서 비롯되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콜로드니는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아주 다른 견지에서 본다.

아이가 그의 부모로부터 단순히 그들의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거나, 부인이 그의 남편에게 그녀가 그와 사랑에 빠졌었고 그의 인생을 만들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녀를 아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왜곡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만들었고 그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가 지금 현재의 그녀는 아니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 어떤 이는 대답하길, ‘그녀의 아름다움이 우연적인 속성인 것처럼 그녀의 존재도 우연적인 속성이야.’라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글썄, 그렇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라는 것은 아주 우연적인 속성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¹⁸⁾

16) Kolodny(2003), 146.

17) Ibid., 146.

18) Ibid., 157.

이러한 주장은 사랑의 이유의 사회적 맥락에 관해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이데올로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콜로드니가 보기에 사랑의 본질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맥락이 관계를 규정하고 관계들은 사랑의 중심적 속성들의 담지자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이유를 관계적 역사에 두는 이러한 이론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결정적인 속성에 대해 진지하게 주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콜로드니와 같은 사람이 제안한 관계적 역사에서 비롯되는 “이유”는 어떤 이에게 상대적으로 사랑스러운 특성에서 비롯될 수 없다.

나아가 사랑을 조건 짓는 역사적 사실들은 도덕적인 성질들과 무관하다.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우연적인 가까움, 친근한 순서, 페로몬의 적합성, 유전적 영향, 감정전이, 습관 등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공포라는 감정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 공포의 대상이 갖는 속성이라든가 두렵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즉 독사에 대한 당신의 공포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공포가 때때로 정당화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는 이와 같은 종류의 이유들에 토대를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이와 같지 않은 듯하다. 물론 우리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관한 이유들을 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을 무서워할 때 제시할 법한 이유들과 동일한 종류의 이유는 아닌 듯하다. 이러한 것은 여러 방식으로 말해질 수 있다.

철수는 왜 그가 영희를 사랑하는지에, 왜 영희가 사랑스러운지에 관한 이유를 댈 수 있다. 영희는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요리를 잘하고 등등.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왜 그 독사가 무서운지에 관한 이유를 댈 수 있다. 독이 있고, 당신을 물 가능성이 있고 등등... 여기까지는 공포와

사랑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즉 영희를 사랑하는 철수가 또 다른 연인인 영희보다 더 우아하고, 더 지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요리를 잘하는 순이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이유는 철수가 그의 애정을 순이에게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영희보다 순이를 더 사랑할 이유가 아닌가? 물론 아니다. 만일 그가 단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순이가 더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의 애정을 바꾼다면 영희에 대한 그의 사랑에는 잘못된 뭔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포와 사랑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공포는 그 대상의 확정적(determinate) 속성인 무서움에 비례해서 느껴져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대상의 확정적 속성이 갖는 사랑스러움에 비례해서 느껴져서는 안 된다.”¹⁹⁾ 그렇다면 사랑의 이유는 대상이 갖는 확정적 속성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한 나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랑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가? 골디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사랑 그 자체”는 “한창기의 감격이 사라진 후에도 사랑 그 자체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²⁰⁾고 말할 때인데, 이와 같은 상식적 의미에서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은 “남아 있는 것은 애착(attachment)이고 중독적 사랑(limerence)에서의 ‘처음의 감동’은 사라졌다”고 할 때만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철학적 의미로 “사랑 그 자체”가 있고 사랑할 순수한 이유가

19) Goldie(2010), 64.

20) Goldie, Ibid., 61.

21) 헬렌 피셔(Helen Fisher)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면 사랑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가지 기준이란, a) 그것이 어떤 유형의 사랑인가, b) 짝짓기 작업을 위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세부작업과 그와 같은 세부작업을 극대화할 필요성에서 오는 선택적인 압박감, 그리고 c) 관련된 주요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의 특징적인 패턴, 마지막으로 d) 그와 같은 사랑이 전형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이러한 네 기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탐욕(lust)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종류의 사랑의 특징은 a) “거의 반수 정도 적당한 파트너와 즉각적인 짝짓기로

있다고 할 때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이다. 다음 장에서 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IV. 사랑의 퍼즐에 대한 세 번째 해결책 - 벨레만의 사랑을 위한 순수 이유

사랑의 퍼즐에 관한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사랑할 이유들이 그 자체로 있고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벨레만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부류의 철학자인데, 그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할 이유들 때문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고 가며, b) 성적인 관계로 물고 간다. 그리고 c) 지배적인 신경 생리적 현상은 안드로젠과 에스토로겐의 분출이다. 마지막으로 d) 지속 정도는 약 몇 분 또는 길어야 몇 시간이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랑으로는 **중독적 사랑(Limerence)**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사랑의 특징은 a) 강하고 집착적인 낭만적 사랑이며, b)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집착적이고 배타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욕망을 가지지만, 지속적 교류에 대해서는 극심하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경험된다. c) 신경전달 물질의 특수한 활성화는 카테콜라민이고 d) 그러한 사랑의 전형적인 기간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며 최대한 길어야 3년이다. 다음으로 **애착(attachment)**을 들 수 있겠는데, 이러한 종류의 사랑의 특징은 a) 그 자체로는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잃게 되면 가장 극심한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다. b)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유아와 부모 간에 애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c) 신경전달물질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고, 이러한 화학물질은 많은 다른 기능을 하지만, 아주 가까운 종들 간의 짝짓기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해진다. d) 애착의 전형적인 지속 기간은 한정적이지 않은데, 몇 달이라기보다 수년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Helen Fisher, "Lust, Attraction and Attachment in Mammalian Reproduction." *Human Nature* 9(1)(1998): 23-52; *Why We Love: The Nature and Chemistry of Romantic Love*(New York: Henry Holt, 2004). 탐욕, 불타오르는 사랑, 그리고 애착, 이 세 가지 사랑은 그 유효기간에 있어 다르며 나머지 두 가지와 달리 애착만이 공유된 경험에 의해 결속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일 수 있다. 중독적 사랑만이 대개 **배타적**이다. 그리고 탐욕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대체물이 있다. 왜냐하면 탐욕적 사랑을 느끼는데 있어 배타적이라도 자극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하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사랑에 있어 사랑스러움을 유발하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인간을 그 자체로 사랑해야 한다는 칸트주의 도덕에서 요구하는 공평무사성 간의 어떤 실제적 갈등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랑의 중심적 속성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벨레만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이성적 자아 또는 의지 이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칸트에 있어 이러한 이성적 의지는 인간의 지적인 본질이기도 하다. 칸트는 그것을 인간의 참된 자이라고 불렀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으로서 정언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칙에 대한 존경은 사람에 대한 존경과 동일한 태도이다. 그리하여 아마도 그것은 결국 사랑에 비교될 수도 있을 것이다.”²²⁾ 이러한 입장은 “보통 함께 가는 좋아함(liking)과 갈망함(longing)으로부터 사랑을 구별한다.”²³⁾ 벨레만은 그의 입장이 프로이트의 충동으로서의 사랑과도 구별된다고 주장한다.²⁴⁾ 그러나 우리가 앞 장에서 구분한 사랑의 종류에 따르면,²⁵⁾ 벨레만 자신이 말하는 사랑과 구별된다고 하는 프로이트의 충동은 ‘탐욕’과 잘 맞고, ‘애착’이나 ‘중독적 사랑’과는 맞지 않는다.

벨레만은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종류에서 감정전이(transference)와 같은 것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요구는 논점 회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벨레만은 사랑이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들 가운데, 고결한 것만 사랑으로 보고 감정적인 것은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안티노미에 대한 그의

22) Velleman(1999), Ibid., 344.

23) Ibid., 342.

24) Ibid., 350.

25) 이 논문의 각주 21)을 참고하라.

대답에서 드러난다.

사랑받는다든 것은[...]우리의 인간성을 토대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 물론, 이러한 해결의 반은 [...]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즉 그렇게 포괄적인 토대에서 평가된 것이 특별하게 평가된 것과 양립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을 낳는다. 그러나 [...] 해결의 후반부는 이렇다. 즉 단지 인간으로서 평가되는 것은 특별하게 평가되는 것과 양립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가격이라기보다 존엄성이기 때문이다.²⁶⁾

벨레만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칸트 자신의 정의를 인용한다. “가격을 가지는 것은 동일한 가격의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꾸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가격을 초월하여 그 어떤 동격의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²⁷⁾ 여기서 벨레만은 사랑을 유사한 가치로 보기를 제안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다.²⁸⁾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벨레만이 말하는 ‘대체불가능성’은 인간은 이성적 본성을 가진 탓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존엄한 가치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함이다.²⁹⁾ 각 개인을 존경심으로 특별하게 대우해야만 하는 이유는 목적 그 자체에 담겨진 가치 때문이며, 그 점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벨레만은 주장한다.³⁰⁾

26) Velleman(1999), 366.

27) Ibid., 364.

28) Ibid., 372.

29) Ibid., 367.

30) Ibid., 370.

그러나 사랑은 선택적이라는 사실과 배타성 또는 대체불가능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벨레만은 경험적 사실상, 목적 왕국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서 다른 방식의 변호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육신과 피로 체화된 인간인데, 그렇다고 그와 같은 사랑이 감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파악한 것이 그를 존경심으로 대우하기에 충분할 지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마주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³¹⁾ 나아가 벨레만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최초의 몇 사람에게 의해 야기된 상처에 “지치게”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구성적으로(constitutionally)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있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삶에 맞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성적 한계에서 멈추어야만 한다.”³²⁾

벨레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사랑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현실적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대신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다른 말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이 존엄성(dignity)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배타성에 관한 우려를 증폭시킬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연히 우리의 사랑-인생의 극장의 제한된 자리에 처음에 지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랑할 이유가 그 자체로 있고 우리는 그 이유들을 위해 사랑한다는 칸트주의 입장을 지지하기에는 약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성적 자아라는 것과 사랑은 선택적이다 라는) 두 테제를 화해시키기 위한 더 나은 제안에 의해서도 명료화되지

31) Ibid., 371.

32) Ibid., 372.

않는다.

우리는 가치의 원천이라기보다 가치의 전달자로서 어떤 사람의 외모, 행위 또는 작품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로서 본다(see as)’라는 우리의 언어와 유사하게 ‘-로서 평가한다(value as)’라는 언어가 필요하다. [...]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행동의 내재적 가치에 의해 빛이 가려진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외모나 행동을 봄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의 내적 자아의 가치를 일으키기를 원한다.³³⁾

벨레만의 사랑에 관한 순수한 개념은 고양된 태도로서의 존경을 의미한다. 그것은 본래적으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 가운데 어떤 이성적 존재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랑은 아주 수준 높은 태도이다. 그러나 유아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본질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심으로 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기원을 다른데서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우선 그것을 사랑에 관한 심리학적 기원에서 찾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기원은 개인의 이성적 자아에 반응하는 능력에 선행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러한 것은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게 된 애착(attachment)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애착의 궁극적 토대는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역사성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관계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역사성, 이데올로기 그리고 관계성

본 벨레만의 분석에는 교훈적인 것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33) Ibid., 372.

느낌에 대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와 같은 느낌은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경험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그것은 소유에 대한 갈망이거나 환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랑의 느낌은 사랑하는 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기에 사랑의 대상은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과, 사랑은 소유에 대한 갈망이거나 환상이라는 이 두 주장에 대해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결내리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랑이 갖고 있는 편파성과 사랑할 이유로서 공평무사성이라는 이 둘을 화해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티노미로부터 탈출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칸트주의 처럼 사랑할 이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기보다 다른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다 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숙고해 보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순전히 기술적 전략은 **개인의 동일성**, 또는 **자아성**이라는 배타적으로 어떤 개인에게만 속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오직 소크라테스만 소크라테스이다. 오직 오바마만 오바마이다. 각각의 인간은 서로 다른 성질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탓에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된다. 각각의 개인은 그들의 성질들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환원 불가능한 자아는 칸트주의의 참된 자아와 다르며,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이유로서 진정한 목표(바로 그 사람)와 중심적 속성(매력적임, 우아함, 지적임 등)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다.

안티노미로부터 두 번째 탈출할 방안은 많은 철학자들이 선호하는 것인데, “**개인의 역사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개인의 본질에 관한 두터운 다양성(a thick variant)을 묘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단순히 자아성이나 개인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은 개인의 역사성을 말하기에는 너무 “얇다(thin)”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는 시간을 통해 지속하는 특수한 개인으로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개인의 개성(Ipseity)은 그와 같은 특수한 개인의 논리적 속성에 불과하다. 반면 역사성은 각각의 개인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고유한 여정을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사랑이라는 결속은 시간-공간에 연장된 두 인간들이 고유하게 함께 엮인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랑하는 이를 확인하고 오직 사랑하는 이 만이 실제하고 특별하다는 속성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 필연성의 결과이다. 마틴 부버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모든 실제적 관계는 배타적이다.”³⁴⁾ 내가 내 인생에서 A와 공유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정확히 B와 공유한 일련의 사건들과 일치했어야만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불가능하다.

피터 골디는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성은 “아리스토파네스적(Aristophanic)”인 것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플라톤 『향연』의 한 부분 속에서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해 말해진 신화와 관련된다. 그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인간의 성은 남, 여 둘만이 아니라 남녀추니를 합해 셋이었다. 지금의 인간 둘이 붙어 둥글게 된 모습을 지녔는데, 남-남, 여-여, 남-여 이렇게 세 조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힘과 자만심이 대단하여 신을 공격할 지경에 이르렀고 대책을 강구하던 제우스가 인간을 절반으로 자르게 되고 여러 후속 처치들을 가해 지금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잘린 인간들이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고 만나서 한 몸이 되기를 늘 열망해 모든 일을 작파했기에 점점 멸종을 해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제우스가 다시 대책을 강구하여 상대방 속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생식방식을 바꾸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인간들의 상이한 성적지향도 이런 본성 때문이며, 각 인간이 자신과 짝을 이루었던 반쪽의 성을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사랑은 애초의 자기 것, 그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그렇게 자기 것을 만나 짝을 이루어 온전한 옛 자기를 회복하게 될 때 행복이

34) M. Buber, *I and You*. Trans, prologue by & notes by Walter Kaufmann(New York: Scribner's, 1970), 126.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불의 때문에 신에 밍보여서 반으로 잘렸고 계속 얽전히 굴지 않으면 다시 잘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운명이기도 하다.³⁵⁾

우리가 아리스토파네스적 의미에서 역사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의 이유에 관해 다른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속성”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아리스토파네스적 의미의 이유는 사랑이란 가치 속성을 순전히 질적인 것으로 만들기보다 역사적인 것으로 만든다. 둘째, 그와 같은 역사적 속성은 관계적인 것이다. 사랑의 이유가 되는 역사성과 관계성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고유한 것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 둘 만이 공유된 행위, 괴로운 시련, 생각의 교환이라는 특별한 역사성을 갖는다. 과거의 복잡성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욕망을 강하게 자극한다. 둘째, 그와 같은 관계는 배타적인데, 이와 같은 배타성은 서로에 대해 갖는 느낌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 셋째, 신화에서 유래된 메타포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포착하기 힘든 방식인데, 나 자신의 기호와 선호 그리고 나의 기억과 연상이 주어지면 나는 당신의 성격의 특이성에 우연히 즉각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되며, 그와 같은 특이한 성격 속에서 당신이 모든 사람과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성과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위의 세 가지 고유성에다 상호적인 역동성을 도입하면 사랑의 이유에 관해 달리 말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하는 핵심이 연인에 대해 지각된 속성이라기보다 본래적으로 상호적인 과정이라면, 사랑이라는 관계는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관계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35) 플라톤 『향연』, 강철웅 역, 이제이 북스, 14쪽 참조.

VI. 결론

이상에서 나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 핵심적이라 볼 수 있는 ‘대체불가능성’을 역사성, 관계성,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사실은 앞 서 프랑크푸르트가 주장했듯이 사랑스러움이라는 기술문구를 만족한 특정대상에 대한 *de re* 해석을 함축한다. 어떤 이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 사람으로 향해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de re* 의미에서 이다. 사랑의 이와 같은 *de re* 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드 수자는 ‘Alcmene 문제’(1987)라 부른 것을 통해 잘 보여준다. 알크메네는 암피트론의 충실한 아내였다. 그녀의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알크메네를 탐낸 제우스가 암피트론으로 가장해서 그녀를 유혹하는데 성공했다. 드 수자는 묻기를 만일 알크메네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유혹을 꺼렸을까? 드 수자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³⁶⁾ 알크메네가 사랑한 사람은 그의 남편인 바로 암피트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우스가 암피트론으로 가장해서 유혹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de re*적이라는 주장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해리 프랑크푸르트는 *de re* 사랑을 사랑에 “개념적으로 필수적인” 특징으로 만든다. 사랑하는 자는 그가 사랑하는 자와 아무리 유사하다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을 그가 사랑하는 자와 적절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사랑받는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의 한 예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또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다.³⁷⁾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인식하거나 그들에 사로잡힌 결과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가치를 반드시 획득한다.”³⁸⁾ 반면에 어떤 것을

36) de Sousa(1987), 8-9.

37) Frankfurt(2004), Ibid., 79-80.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이 두렵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 공포의 반응을 할 만하게(merit) 그것들은 확정적(determinate)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랑의 특징에 대한 솔로몬의 기술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임과 덕스러움을 부여한다.” “우리가 매력적임과 덕스러움을 부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발견하거나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사랑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이유를 가진 것으로 본다. 솔로몬은 이를 더 설명하기 위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언급한다. 콜린은 왜 엘리자베스가 자신과 결혼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낸다. 즉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기득권, 그의 가족의 인맥, 등등. 솔로몬은 이러한 이유들은 잘못된 이유라고 주장한다.⁴⁰⁾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단지 한 가지 종류의 이유, 즉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속성들과 같은 유형의 이유들”⁴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다. 대신에 솔로몬은 그가 ‘아리스토파네스적 이유’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속성들이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가치를 집어내는 이유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순수 이유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해 넣은 이유도 아니다.

사랑의 본질이 밝히는데 있어 나는 먼저 ‘사랑의 퍼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검토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써 프랑크푸르트와 솔로몬의 입장에 따르면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함”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와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점에

38) Ibid., 38-39.

39) Solomon(2007), Ibid., 55.

40) Ibid., 57.

41) Ibid., 58.

서 차이가 있다. 즉 솔로몬은 사랑의 관계에 고유한 ‘대체불가능성’, ‘우연성’을 ‘아리스토파네스적 역사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대체불가능성’을 *de re* 해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점이다. 나는 솔로몬이 ‘아리스토파네스적 역사성’,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de re* 사랑’을 통해 사랑의 ‘대체불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 점에서는 그들의 입장이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 나아가 콜로드니의 ‘관계 가치로서의 사랑’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여 솔로몬과 프랑크푸르트가 해명하지 못한 사랑의 관계에 존재하는 ‘우연성’과 ‘사회적 관계’로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덧붙여 나는 ‘역사성’과 ‘경험적 필연성’,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사랑의 이유를 통한 사랑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플라톤, 강철웅 역, 『향연』, 이제이 북스.

양선이(2002), 「도덕적 가치와 책임」, 『철학연구』 제 59집: 231-252.

Buber, M.(1970), *I and You*. Trans., prologue by & notes by Walter Kaufmann, New York: Scribner's.

D'Arms & Jacobson(2000), "Sentiment and Value", *Ethics* 110: 722-744.

de Sousa, Ronald.(1987), *The Rationality of Emotion*, Cambridge, MA: MIT Press.

Fisher, Helen.(1998). "Lust, Attraction ad Attachment in Mammalian Reproduction." *Human Nature* 9(1): 23-52.

Fisher, Helen.(2004), *Why We Love: The Nature and Chemistry of Romantic Love*, New York: Henry Holt.

Frankfurt, H.(1999), *Necessity, Volition and Lo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kfurt, H.(2004), *The Reason of Lo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ldie, Peter(2010), "Love for a Reason", *Emotion Review* 112(2): 61-67.

Kolodny, Nikko(2003), "Love as Valuing a Relationship", *Philosophical Review* 112(2): 135-189.

Korsgaard, C.(1996). *The Sources of Norm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rty, A.(1988), "The Historicity of Psychological Attitudes: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not When It Alteration Finds." In *Mind in Action : Essay in Philosophy of Mind*, Boston: Beacon Press.

Solomon, R.(2007), *Lessons of Love(and Plato's Symposium)*. In R. C. Solomon, *True to Our Feel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ennov, Dorthy(1979). *Love and Limerence: The Experience of Being in Love*, New York: Stein and Day.

Velleman, D.(1999), "Love as a Moral Emotion", *Ethics* 109: 338-374.

Zajonc, Robert(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2-175.

Abstract

Being loved for oneself unconditionally is incompatible with being loved for any reason at all. For if we love an individual for himself alone, and love alters not when it alteration finds, then no reason or set of reasons can be necessary or sufficient. When a necessary feature was lost, one would cease to love: if a reason were sufficient, one would be committed to the polyamorous phase of Diotima's ladder. We can call this 'the puzzle of love.'

In order to solve the puzzle, in this paper, I examine three different views in a recent time, and stress the historicity, Ideology and relationship. In short, I argue that these ideas are what lie behind the claim that love for another person ought to be *de re*. It is *de re* in the sense that it is directed towards that very person who shares exclusively unique historicity with me. It is one thing to love a particular person and quite another to love some properties that s/he happens to possess.

【Keywords】 Normative Endorsement, Nonsubstitutability, Historicity and Ideology, Relationship, *de re* Love

논문 투고일: 2014. 3. 17

심사 완료일: 2014. 4. 16

게재 확정일: 2014. 4. 16